

무주군, 골목식당 살리기 만전

식당 업주들과의 간담회

무주군은 골목식당 활성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5일과 6일 무주읍내권 전간도로와 후간도로 식당 업주들을 비롯한 한국의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 사병국 지부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5일과 6일 무주읍내권 전간도로와 후간도로 식당 업주들을 비롯한 한국의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 사병국 지부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골목식당 상권이야말로 우리군 경제의 모체 혈관”이라며 “식당들이 살아야 무주관광도,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오랜 친체를 씻고 활기를 충전할 수 있는 대책과 아이디어들을 모아보자”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들은 “맛, 청결, 위생, 친절로 승부를 걸고 행정에서는 이를 지원해주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정책들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희망은 있다”라며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좋은 결실을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식컨설팅을 비롯한 한식·양식 등을 배울 수 있는 맞춤형 요리강습, 그리고 식당홍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전간도로에 위치한 식당 업주들은 일방통행이 불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호소하며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방통행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여령 위생관리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이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간 추진해왔던 친

절·위생교육은 물론, 식당시설 개선 사업 등이 기반이 되는 만큼 골목식당 활성화 전망은 밝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골목식당 상권 활성화를 위해 13일(무주읍 반딧불축제 내)과 20일(실천면 소재지 권), 27일(구천동 관광단지 내)에도 대상 업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용훈 신임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선출

“세계축제 도약” 포부 밝혀

2019년도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제1차 임시총회가 지난 5일 최북미술관 2층에서 5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위원장에는 진용훈(68, 무주읍) 씨, 부위원장에 백남돈(67, 실천면) 씨, 이사 15명, 감사 2명이 선출됐다.

진용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쁨과 영광보다는 무거운 마음속에서 자리의 책임감 먼저 느껴진다”면서 “이번에 위원회가 새롭게 태어났기에 여러분과 함께 뜻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모아 2년 연속 대표축제인 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로 견고히 자리 잡아 세계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



실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반딧불축제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축제의 내용과 모습도 초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경제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데 대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반딧불축제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이 행복하다’라는 무주군 군정지표에 맞는 색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장수군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는 전액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교육비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도 1시군 1대표 작은축제 선정

16일부터 이틀간 열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선정됐다.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은 시·군별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를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진안군은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로 △진안고원 김장보쌈축제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고로쇠축제는 12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축제관광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1년에 딱 한번 먹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진안고원 고로쇠를 브랜드를 개발하여 불철 대표 관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고로쇠축제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019년 트렌드인 뉴트로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고로쇠 먹

고, 젊음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다.

청바지(청춘, 바로, 지금) 패션쇼, 출발! 고로쇠 원정대의 주제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팔딱팔딱 송어잡기, 청춘오라실, 고로쇠 페트병 화반, 돼지 저금통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3월 13일 까지 진안축제 홈페이지 (<http://www.jinanjestival.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남귀현 고로쇠축제위원장은 “옛날 선조들이 경칩을 전후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골리수(고로쇠)를 먹으며 건강을 챙겼다고 한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는 일교차가 큰 운장산 자락에서 평균 해발 400m이상 고지에서 생산되어 맛과 영양분이 좋기로 유명하며, 정제기를 통해 더욱 깨끗한 고로쇠로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아이들까지 즐겨 먹을 수 있으며, 축제장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새봄 나들이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소재 복수, 농림부 ‘거점도축장’ 선정

도축시설 현대화·운영자금 등 정책 사업 지원받아

장수 계남면에 위치한 육가공업체(주)복수(대표 한규인)가 농림수산식품부 2019년 거점도축장 선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됐다.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5개 도축업체가 신청했으며, 소비

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구성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는 거점도축장 선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주)복수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과 운영자금 등 정책 사업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

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동부권의 유일한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된(주)복수는 도축장 업체중 유일하게 친환경적인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돈모용해기술 시설을 구축과 환경분야에 철저함을 도모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과 위생, 안전성을 확보해 고품질 도축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업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

장수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차주연 장수읍장, 주민협의체 위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장수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병선 센터장 위촉장 수여와 임

원 선출, 장수군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협의체 위원장에는 박문용, 분과장으로는 주거복지분야 류기홍, 일자리분야 조방희, 도시활력분야 김광수, 공동체분야 조국현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지난해 5월에 구성된 장수군 도시

재생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이견 갈등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지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도시재생에 접목시켜 주민 모두가 호응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jmaeil.com